

탄소복합소재 스포츠산업 육성 시동

전주시,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활성화 대책 수립·융복합 콘텐츠 개발 검토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를 개발하고 보급한 전주시가 탄소복합소재를 이용한 첨단 스포츠용품 개발에 나선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스포츠 명품 도시 조성 및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4900만 원을 투입해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양궁장비와 태권도 보호 장구 등 탄소복합재 소재를 이용한 스포츠용 첨단부품 및 소재 개발 등에 대한 기획과 탄소소재와 IT를 융복합한 헬스케어 개발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에 소재한 스포츠관련 업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또, 각종 대회 등을 통해 관련업체 홍보 극대화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덕진공원 주변 고령친화 웰빙 스포츠 타운 구축, 건지산 편백 나무 힐링 숲 구축 등 전주의 문화적·지리적 특성을 살린 스포츠산업 관련 콘텐츠 육성계획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VR·AR(가상·증강현실) 등 첨단 ICT(정보통신기술)산업과 스포츠를 융복합한 새로운 스포츠산업 콘텐츠를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22일 전주시의회 5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구성

전주시는 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슬로시티 정책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상호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주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층 간담회장에서 스포츠분야 교수와 기업대표, 체육인, 시의원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스포츠산업육성지원 다올마당'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포츠산업 기본계획 및 전략수립을 위해 논의했다.

시는 다올마당을 통해 수립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용역내용에 반영시켜 전주시 스포츠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토대

위에서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대수명 증가로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들의 생활스포츠 수요에 부응하고, 스포츠용품·서비스와 스포츠·관광, 의료 등 연관 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는 스포츠와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스포츠콘텐츠 개발·육

성으로 전주가 스포츠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관련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재수 체육산업과장은 "전주시 실정에 맞는 실질적이고 특화된 스포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브랜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문인력 양성 산실

9년간 1700명 현장실습 지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도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교육 등을 제공하면서 농생명소재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이 되고 있다.

22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9년간 도내 농생명산업 관련 인력 1,700여명을 대상으로 기능성 농생명소재 R&D 전문인력 양성 및 예비인력의 현장실습을 지원했다.

특히, 연구원은 최근 2년간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등 도내 예비인력 40여명을 대상으로 미생물 검사 및 품질관리 교육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4주~8주 현장실습을 지원해왔으며, 졸업 인원의 약 60%가 농생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취업하거나 관련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원에서 지원받은 장기 현장실습교육도 기업 현장 실무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스태비아에 재직중인 강주희씨는 "실습을 통해 얻은 현장실무 감각으로 현장에서 분석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유강열 원장은 "앞으로도 농생명산업 관련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전문기술 인력 수요 충족 및 농생명 산업체의 현장으로 기술교육지원을 실시하여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기능성소재 관련 현장인력과 예비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을 목표로 농생명소재 R&D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 혁신도시 단독주택지 불법 가구분할 실태조사

전주 혁신도시(중동)의 주차문제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독주택용지 불법가구분할 전수조사를 23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혁신도시 내(중동) 단독주택용지는 2014년경부터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3가구 이하로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건축주와 부동산업자들이 불법 가구분할(4~6가구)을 통해 다가구 원룸지역으로 변질시키고 있어 주차문제 등 많은 민원이 유

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혁신도시 한진 및 전북도시가스에 불법 가구분할 방지와 관련된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이번 전수기간 중 적발된 불법 가구분할 주택의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후 미이행시에는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방침이다.

완산구청에서는 '불법 가구분할 예방 안내문'을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물주에게 발송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덕진지역자활센터서 맞춤형 주거복지교육·상담

전주시는 22일 덕진지역자활센터 자활입문 참여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복지교육 및 상담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복지교육 및 상담은 전주시주거복지네트워크 참여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거복지교육을 요청하면, 전문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파견해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공공임대주택, 주택전월세 용자지원,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공공과

민간에서 실시하는 각종 주거복지사업을 맞춤형으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에는 박민수 전북주거복지센터 팀장과 전주시 주거복지과 전문 공무원이 강사로 나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LH연계 전세임대주택 수시 신청 제도와 민간에서 실시하는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소개했으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맞춤형 상담도 진행했다. /인재용 기자

탄소포인트 가입 전주시민들 꾸준히 증가

지난해 약 5408톤 이산화탄소 감축... 시, 에너지의 날 기념행사 거행

에너지절약 등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는 전주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863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신규 가입해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전주시민은 총 5만1,694세대로 증가했다.

가입 규모별로는 단독주택 6,085세대와 29개 아파트 단지 1만7,238세대, 아파트 개인 가입세대 2만8,098세대, 공공기관 22곳, 학교 22곳 등이다.

탄소포인트 가입세대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약 5,408톤 상당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 이는 소나무 108만 그루를 심는 효과

와 같다.

이와 관련, 시는 22일 전주시네마타운에서 제14회 에너지의 날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에너지의 날은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 8월 22일을 기념해 온실가스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행사로, 올해 행사는 '불을 끄고 별을 쬐다' 평화로 만드는 반짝이는 밤하늘'을 주제로 22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전주시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마련한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후변화와 관련 다뤄진 영화인 '내일'을 함께 시청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전주

시민들은 오후 9시부터 5분간 생활속 에너지 사용 줄이기를 위한 '전등 끄고 가족과 대화하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시는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26일에는 객사 앞 차 없는 사람의 거리에서 에너지의 날 기념식과 청소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원탁토론, 우리 동네 기후운출 결과 발표, 얼음조각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광역자활센터 영농사업단 감자 재배기술 교육 실시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22일 선덕복지재단 교육장에서 전북광역자활센터 영농사업단원 40명을 대상으로 감자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초보 농업인이 감자 재배 시 어려움을 겪는 각종 생리장애와 병해충 방제 등에 대한 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일선 영농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재배기술 노하우가 풍부한 조한춘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기초 이론부터 핵심 재배기술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전북광역자활센터 영농사업단원은 "감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 감자재배 등 영농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궁금증이 해소돼 앞으로 품질 좋은 감자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재용 기자

남원에서 주택 화재로 남녀 2명 사망

남원에서 주택에서 화재가 일어나 남녀 2명이 사망했다.

남원경찰서는 22일 오전 6시 40분께 남원시 운봉읍 화해단지 인근 주택이 불에 탔고 남녀 두 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주변 주민의 신고로 119소방대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그러나 이미 주택 내부는 전소해 일부 무너진 상태였고 거실과 주방에서 각각 시신 1구씩 발견됐다.

그러나 이미 주택 내부는 전소해 일부 무너진 상태였고 거실과 주방에서 각각 시신 1구씩 발견됐다.

남원은 화해단지에서 일하는 이모(57)씨로 확인됐으나 여성은 아직 신원파악이 되지 않았다.

소방과 경찰은 전기적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와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